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 선과 악이 둘이 아니라 풍운 스님은 이것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수 움직여 보여줄 뿐!



##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풍운 스님 (논산 영주사 조실)

“그저 산속에 살고 있는 중(僧)이여-, 입만 열면 거짓말이어서 할 말도 없는데 뭐하러 왔어.”  
호남의 금강으로 불리는 대둔산 영주사에 주석하는 풍운 보안(風雲 普雁) 스님. 조실채로 찾아보니 “자연에 순응하며 살 뿐이니 편히 쉬었다 가라”며 자상하게 맞아주신다.  
“여기가 부처님 품안입니다. 산봉우리가 연꽃잎처럼 에워싸고 있어 연법에 해당하는 자리이죠. 그래서 영주사에 오면 모두들 편안하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산이 좋아 골이 깊은 월정사로 출가한 스님은 전국의 명산을 찾아 정진했다. 23년 전, 황산벌을 찾아 우연히 들른 대둔산이 편안해 인연터라 생각하고 황무지에 바랑을 풀고 주지 법천 스님과 함께 불사를 시작했다.

본래 이곳에는 영은사라는 절이 있었다. 계백장군이 이끌던 5천 결사대와 나당 연합군 5만명이 싸우던 황산벌에서 수많은 이들이 전사했다. 영은사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한 사찰이다.

“풀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어요. 오직 기도만 했어요. 그러다보니 서서히 일이 되어 가고 오늘에 이르렀지.”

‘기도’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골이 깊은 계곡에 대웅전, 명부전 등 전각이 20여 채에 국내 유일의 노천 오백나한전, 금강사리석탑, 거대한 남북통일 미륵대불, 납골당 등 4만여 평의 대지에 대찰이 우뚝 서기까지는 뭔가 있었지 했는데, 그것이 기도란다.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실천입니다.”

의외였다. 풍운 스님이 말하는 기도는 어느 스님들의 기도와 달랐다. 스님은 “법당에서 묵묵한 천다고 모두 기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실천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기에, 중생들이 기도(실천), 참회하고 인격을 기르는 도량불사를 했다는 것이다.

스님이 강조하는 ‘실천기도’는 쉽게 말해 ‘은혜를 갚는 것’이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대자연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사람은 물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덕택으로 살고 있다. 이들의 은혜를 알고 갚아야 한



풍운 스님의 원력으로 완성된 국내 유일의 노천 오백나한전.

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백장형규가 스님의 화두이자 기도이며 정진이다.

세수 80을 바라보건만 풍운 스님의 당당한 풍채는 마치 대둔산을 지키는 호랑이 같다. 요즘 사람들의 최대 관심인 건강관리가 궁극했다.

“자기 몸에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도 잡념입니다. 여기에 얽매이면 도리어 큰일나요. 천지우주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주사를 찾는 대중은 풍운 스님으로부터 법문 듣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스님은 “그저 풀 뽑고, 밥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법문”이라며 손사래를 치곤 한다. 스님은 하루종일 대중과 함께 있어도 별로 말을 하지 않는다.

도량 청소가 되었는지, 누가 왔다 가는지, 밥이 어떤지, 옷이 어떤지 일체 타지 않는다. 단지 손수 보여줄 뿐이다. 사실 스님은 풀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고 있긴 하지만 제대로 듣는 이가 많지 않은 것이다.

하루는 어느 불교대학에서 스님에게 법문을 청했다. 평소 법단에 오르지 않지만 불교대학의 간곡한 정성을 뿌리칠 수 없었다.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단에 올랐다.  
“거짓말하며 은혜만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참회합니다. 저의 죄를 받아주세요.” 세 마디 하고 대중을 향해 큰절 세 번 올리고 법좌에서 물러났다.

영주사로 들어서는데 아랫마을에서 노인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거마비로 받은 봉투를 그대로 건네주었다.

좀처럼 대중 앞에 나서지 않던 스님이 얼마 전 산에서 내려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사람답게 사느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죽는 것도 중요하다. 계룡산을 지키는 일에 한 목숨 내놓는 것이 뭐가 아깝겠는가?”

호남고속철도의 계룡산 통과 저지를 위해 지역불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것이다.

스님의 서재에 들어서자 경전은 물론 법률서적과 일반판 불교서적이 가득했다. 잡지도 책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요즘은 일본판 ‘사후에 어디로 가느냐’ ‘불교실화’를 번역하고 있다. 굳이 책으로 출판하기보다 공부할 놓치지 않으려는 방편이다.

스님은 경전과 함께 법률판례집을 즐겨본다. 판례에는 세상사 이야기가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스님, 저렇게 많은 경전, 판례집을 요약하면 무엇이라 하시겠습니까?”

“중도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물질과 정신, 선과 악도 마찬가지로 하나입니다. 이것들을 잘 병행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붓을 들어 일필휘지로 써내려갔다. ‘불중중도 중도불변(佛中中道, 中道不變)’, ‘불교는 곧 중도이며, 중도는 천지우주의 근본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글=이준엽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모든 생명은 대자연 덕택으로 살고 있어 은혜 갚으며 살아야  
“몸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금물... 천지우주에 순응하면 건강”  
지역불자들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 저지 운동 참여

## 호 소 문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 479-2 죽장사는 2006년 9월 11일 총무원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죽장사를 검수 인계하고 모든 건물의 출입을 금하며 용무가 있을 시 해당 소인자의 허락을 받고 출입하시기 바라면서 이에 따르지 않을 시 불미스러운 일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2006년 8월 23일 부로 법심스님을 주지로 임명하였다. (현재 사찰입구 플래카드, 내용)

2003년 이후 직지사(주지 성응)는 죽장사(주지 명호)에게 총무원에서 발행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고 종단에 재산을 귀속하도록 요구하여 현주지에게 주지사자 상승의 승계를 문서로 요구 하였지만 2006년 7월로 공권력 정지 5년 선거권 박탈의 징계계 이에 항의하여 죽장사(주지 명호)는 7월 20일 탈종을 총무원에게 통보하자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사고 사찰임을 통보하고 현주지를 멸빈하였습니다.

2006년 9월 11일 오후 3시 60여명의 스님 및 정제불명의 남자들이 사찰을 무단 점거하고 조계종 호법부 검수에 응하라며 자물쇠를 걸단하여 모든 집을 강제로 이삿집 센터에 유치하여, 주지, 총무, 공양주, 신도 5명은 불안한 환경에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서 현재 배회하고 있습니다.

명호스님은 18년 동안 죽장사를 불사하고 (88. 7. 30) 직지사에 주지임명을 받고 매년 분담금 500만원을 2005년까지 완납하였습니다.

구미 경찰서에 2006년 9월 11일 2시 40분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지만 동원된 경찰차(2대 6명)는 무단 침입과 자물쇠 강제철거를 항의하고 사진을 찍도록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앞에는 법도 없고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는 현상장을 개탄합니다. 법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개인 사유재산을 조계종이란 특정집단이 힘으로 짓밟게 버리는 현사태를 조계종 총무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루 속히 도량이 평정되어 옷한벌을 갖고 배회하고 있는 저희 주지스님, 총무스님이 기도에 정진하도록 사부대중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후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무단 침입하여 점거하고 있는 귀 종단에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2006년 9월 11일 신도대표



직지사가 임명한 주지 법심스님측에서 죽장사 출입을 통제, 철문을 봉쇄하고 있다. (9월14일 현재)



죽장사 입구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

• 신도회장 김학송 • 부회장 김순희 이화선 박금숙 • 염불회 회장 권소희 • 부회장 김점숙 이해옥 • 거사암회 부회장 박응도 황병진 김윤석

## 대 한 불 교 죽 장 사